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불법사금융 단속

내달부터 연 24%... 정부, 1조원 특별대출 공급 불법사금융 벌금 5000만원 → 3억원 대폭상향

다음 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면서 정부가 1조원의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취약계층의 제도권 자금 이용 기회 감소에 따른 불법적인 사금융 시장 확대 가능성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최고금리 인하 전후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간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 척결 TF' 총괄 하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전화, 인터넷, 앱 등 모든 채널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주요 영업기반인 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망에 대한 불법영업 차단 조치도 준비한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스팸영업시 전화 번호 도용을 사전 차단하고, 적발시 사후 이용 중지도 대폭 강화한다. 인터넷 상의 불법사금융 정보 유통 감시도 강화하고 주요 대형 SNS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및 배상책임도 높였다. 무등록 대부, 광고 등에 대한 벌금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였으며, 법정최고금리 위반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하고, 명칭도 현

행 '비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못박았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례적인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최소 38만명, 최악의 경우 100만명 정도가 불법사금융으로 불릴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금융상품, 채무조정, 복지 등을 강화해 최대한 그 부분을 흡수토록 해서 불법사금융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위해 '안전망 대출'(가칭)을 만들어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1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월 7일 이전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대출의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저소득·저소득자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국민행복기

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간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되 상품 수요 추이를 봐가며 공급 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며,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대출 성실 상황 시에는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금융 상품으로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상품"이라며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심사요건도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 체계적 채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한다.

서민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금융이용자가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 분야와 금융 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통합지원센터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뉴스



정부 대응수위 강화에 하락세 보이는 가상화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대응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 출시

하림, 15일 현대홈쇼핑서 신제품 특별구성 첫 선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토종닭 순살 찜닭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림은 국내산 매실농축액으로 숙성시켜 부드러운 육질과 감칠맛을 자랑하는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을 15일 현대홈쇼핑을 통해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방영시간은 오후 6시 35분부터다.

하림이 2018년 첫 번째 신제품으로 야심 차게 선보이는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은 국내산 토종닭을 엄선해 국산 매실농축액에 숙

성시킨 다음 하림만의 특제소스에 버무린 양념육 제품이다.

건장에 좋은 매실로 숙성해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뛰어나다. 또한 찜닭 소스에 재운 상태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현대홈쇼핑 방송에서는 즐길 만한 육질의 토종닭 2종을 간편하게 가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 6개(개당 300g)와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닭갈비' 7개(개당 400g)를 3만 9000원대에 선보인다.

(주)하림 마케팅팀 한재호 담당자는



"이번 홈쇼핑 방송을 통해 100% 국산 토종닭으로 만들어 즐길 만한 육질을 자랑하는 매콤한 닭갈비와 달콤함과 짭짤함이 조화로운 찜닭을 다양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덕유산리조트 고객감동 실현 8년연속 대상 수상

동계 스포츠의 메카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가 11일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주최,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고객감동경영대상 서비스·레저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지속경영평가원

이 마련한 "2018 고객감동경영대상"은 핵심 경영요소로 자리잡은 고객만족경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고객감동경영을 창조해 선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 이를 시상하고 있다.

많은 후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후보기업으로 선정되어 설문

조사를 통한 고객감동지수 산출, 경영전략과 고객감동 실천체계, 고객감동을 위한 경영시스템, 고객감동 관리의 우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객감동경영지수와 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가 결정되었다.

이번 시상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명실공히 서비스·레저부문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일자리안정자금을 아시나요

전북중기청, 현장홍보 총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1일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홍보의 날'로 정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점가에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전북중기청, 소진공, 중진공, 기보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총 8개 기관 50여명이 현장 홍보를 통해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 제도설명과 신청·접수방법을 안내했다.

전북중기청은 전북 14개 시·군별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협·단체'와 공동으로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고 스크린 방식의 홍보를 추진하며, 특히 홍보 전담반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상점가를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현장 홍보를 설날까지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재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으로서,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기아차 니로EV

미래시장 견인할 기술력 인정

CES 에디터들의 선택상 수상

현대·기아차 차세대 친환경차들이 첨단 미래 기술의 각축장인 2018 CES에서 미래 친환경 시장을 이끌어갈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았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와 기아차 니로EV가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있는 2018 CES에서 유력 언론사들이 뽑는 '에디터들의 선택상(Editor's Choice Award)'을 수상했다.

'에디터들의 선택상'은 CES의 공식 언론사이자 USA TODAY의 자회사인 리뷰드닷컴(Reviewed.com)이 미국 주요 언론사의 편집장들과 함께 2018 CES에 전시된 기술 및 제품 중 혁신, 기술력, 디자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이번 CES에서 전시된 수백개의 새로운 제품들 중 자동차, 스마트 홈 등 10개 분야에서 34개의 제품들이 선정됐으며, 이중 자동차 부문에서는 넥쏘와 니로EV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현대자동차 최초의 수소전기전용차

인 넥쏘는 차세대 동력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첨단 ADAS(전자자 보조 시스템) 기술 등이 적용되었으며, 5분 이내의 충전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590km 이상(인중 전)의 항속거리를 구현하는 등 현대차의 미래 기술력이 집대성된 '미래형 SUV'이다.

올해 1분기 국내에서 먼저 선보인 후 하반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해 수소전기차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뷰드닷컴은 "넥쏘는 미국 시장 데뷔는 미국 수소전기차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넥쏘를 소개했다.

니로 전기차는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기아차의 차세대 전기차로, 64kWh 리튬 폴리머 배터리팩과 강력한 150kW 전기 모터가 탑재됐다. 기아차는 이번 CES에서 '니로 전기차 선행 콘셉트'를 공개했다.

리뷰드닷컴은 "니로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모델보다 더 긴 238마일(3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